

# 단풍미인씨름단 기량 발휘 지원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선정  
 국비 4200만원 확보  
 훈련 장비 구입 등 지원

정읍시가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 체육 행정을 발휘한 결과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4,2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풍미인씨름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예산은 훈련 장비 등의 구입과 전지 훈련 각종 대회 출전 비용 등에 사용돼 우수한 성적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평소보다 훈련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함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악한 지방 체육 활성화와 훈련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가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단풍미인씨름단.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는 씨름단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속씨름 고성장사 씨름대회에서 2개 체급의 장사를 연달아 배출해내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김기환 선수가 한라장사(108kg 이하), 서남근 선수가 백두장사(140kg 이하)를 차지하며, 정읍의 오향(五香)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읍=김대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21 온라인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이하 태권도 캠프)를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한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 세계 52개국 청소년들, 태권도 수련 참여

태권도진흥재단, '온라인 태권도 캠프' 10월 7일까지 한글 캘리그라피 등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2021 온라인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이하 태권도 캠프)를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2021 태권도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 38명의 청소년을 비롯해 페루 브라질 말레이시아 모로코 영국 키리바시 등 5개 대륙에서 52개국 36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청소년들은 매주 1~2회 캠프에 참가하며 총 10회에 걸쳐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라이브수련문화 프로그램 등에 동참한다.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은 태극 고려 금강 등의 품새 수련과 발차기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브 수련은 수련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 수련이 어려운 부분을 실시간으로 지도해 준다.

특히, 문화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키트를 활용해 전통매듭 만들기과 한글 캘리그라피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태권도에 대한 이해와 흥미 유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태권 댄스와 자유 품새 콘테스트 등도 반영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우수 참가자들에게 태권도복과 태권도화 트레이닝복 등을 선물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2021 온라인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 참가한 전세계 청소년들이 태권도의 매력과 대한민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캠프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태권도와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온라인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는 24일 인소식을 시작으로 51일간의 캠프 일정을 시작한다.

태권도 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국문: <http://www.worldyouthtaekwondocamp.com/kr/minindex.php> / 영문: <http://www.worldyouthtaekwondocamp.com/minindex.php>)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교 야구부-고창군 인연 '화제'

대통령배 고교야구 준우승 차지 라온고, 고창 야구경기장서 베이스캠프 "고창서 야구장 제공, 3주동안 전술훈련 집중... 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 군, 야구·볼슬레이·세팍타크로·장애인배드민턴 등 총 21개 팀 유치

지난 22일 열린 제5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라온고등학교 야구부와 고창군의 인연이 화제다. 경기도 평택 라온고는 2016년도에 창단한 신생팀으로, 대회 준비를 위해 고창 야구경기장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게 됐다.

라온고 관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창군에서 야구장을 흔쾌히 제공해줬다"며 "3주간 고창군에 머물며 전술훈련에 집중했고 대회 결승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라온고등학교 등 야구부 8팀, 대한볼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국가대표팀, 부산환경공단 등 세팍타크로팀 9팀,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등 총 21개 팀 325명의 선수단을 유치했다.

전지훈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크다. 선수단은 최소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고창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



군이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역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고창군이 전지훈련 메카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음성 확인(PCR검사) 등 철봉방역을 병행하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경기는 못했지만... KBO 올스타 선수들, 특별 트로피 받는다

야구팬들이 직접 선발한 2021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 12 선수들에게 특별 트로피가 전달된다.

KBO(총재 정지택)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올스타전을 열지 못했지만 투표에 임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선수들에게 팬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베스트 12에 뽑힌 이들에게 트로피를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 LG NC, 한화, 키움 선수들이 경기 개시 전 트로피 수상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한다. 28일에는 SSG 31일에는 삼성 선수들을 대상으

로 동일한 방식의 시상식이 열린다.

올스타 베스트 12로 선정된 선수들은 25일부터 31일까지 모자에 2021 올스타 패치를 부착한다.

선수 본인의 역대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 횟수가 표기된 특별 패치로 올스타 베스트에 11차례 선정된 삼성 강민호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숫자가 적힌 패치를 사용한다.

KBO는 후반기 중 올스타전을 위해 준비한 선수 유니폼 모자, 기념구 등 기념상품들을 활용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뉴스시스